

내국인-외국인선원 갈등 '위험수위'

제주 어선 노동환경 열악·외국인 의존 심화 내국인은 "왜 일 못해" 폭언... 외국인은 보복 "인권침해 예방교육·뱃일 이해 프로그램 절실"

제주지역에서 외국인선원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 C호(32t·승선원 10명-베트남 5명·한국 5명)가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접수됐다. 이에 남해어업관리단이 확인한 결과 C호는 베트남 선원이 흉기로 선장을 위협, 조타실을 점거한 상태로 이어도 남동쪽 약 92.6km 해상에 머물고 있었다. 이후 해당 선원은 제압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신병이 인

계됐다. 선원은 평소 복속하던 약이 떨어져 임항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에도 성산 선적 연승어선에 탑승한 베트남 선원 3명이 서귀포항 남쪽 555km 해상에서 말 다름을 하던 40대 한국인 선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1년의 실형을 받았으며, 같은해 7월 20일에는 애월항에 정박 중인 안강망어선에서 베트남 선원이 자신을 나무라는 선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범죄가 잇따르는 원인에 대해 어업 현장에서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외국인 선원 의존도 심화를 꼽고 있다. 제주 어선 선원 중 외국인 비율은 2015년 1133명(15.5%)에서 지난해 1592명(21.5%·잠정)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가 한국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 17.2%(2018년 기준)는 노동시간이 일평균 16.9시간에 달했고, 41%는 월급이 5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연승어선 관계자는 "일을 하려는 한국인 선원이 줄면서 현재 선원 9명 중 5명이 외국인 선원으로 채워졌다"며 "뱃일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폭언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선원에게는 더욱 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사건도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권침해 예방교육과 조업에 투입되기 전 뱃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 범죄 집계 등 현황을 따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며 "다만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민간(수협 중심)이 수행했던 '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를 신생 공기법인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日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하라"

제주농업인단체 규탄 성명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일본의 결정은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고,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범죄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경우 수산물뿐만 아니라

조류를 이용한 친환경 비료나 폐화석을 이용한 토양개량제와 어분비료를 이용하는 제주 농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토양 오염으로 우리의 생명수인 지하수까지 영향을 끼쳐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제주 바다를 지키는 것 또한 바다에서부터 삶이 시작되는 우리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라는 제주도정의 입장을 강력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문이숙기자 ms@ihalla.com

환경단체 핏핑크들핀스 일본총영사관 앞 1인 시위

해양환경단체 핏핑크들핀스는 14일 제주시 노동동에 위치한 제주일본총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사진

핏핑크들핀스는 "방사능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 해역으로 유입되면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200일이 지나면 제주해역에 도착, 280일 이후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염수 배출에 대해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일본 정부의 처절한 태도이며 바다를 방사능 물질로 오염시키는 범죄행위"라며 "모든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예고했다. 강민성기자

행인 치고 달아난 30대 뺑소니범 긴급체포

승용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도주했던 뺑소니범이 긴급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14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전후로 제주시 조천읍 크라운골포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변을 걷고 있던 50대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현장엔 범퍼 일부분과 사

이드미러 등이 파손돼 흩어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에 치여 크게 다친 B씨는 오전 6시쯤 행인에 의해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날 오전 8시30분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만취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성기자

아내 살해 70대 검거

서귀포경찰서는 부인을 둔기로 살해(살인 혐의)한 A(7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에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아내 B(75)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한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백근탁기자 haru@ihalla.com

연동 공사현장서 화재

제주시 연동 '나인몰' 공사현장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14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2분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나인몰 공사현장에서 검은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 인력 36명과 장비 13대를 동원해 20여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화재로 인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은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14일 서귀포시 동흥동에 마련된 서귀포시 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119응급구조팀과 의사들이 백신접종후 중증 반응을 보이는 환자 이상 증상을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

이상반응 응급처치 초점 오는 22일부터 접종 실시

서귀포시가 오는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앞둔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14일 서귀포시예방접종센터(서귀포의료원)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에는 시청 관계자를 비롯해 의료진, 군·경·소방대원 및 가상접종자 등 70여명이 투입됐다.

실제 백신의 이동·보관 준비과정부터 접종·예진·접종·이상반응 관찰·퇴실 등 접종이 이뤄지는 전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응급처치 및 이송 등 돌발상황에 대한 조치 사항

도 점검했다. 이날 제주도와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훈련 전반에 대한 평가에 나섰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 주·야간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엽 시장은 "센터 개소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빨리 안전한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 직원 및 의료진에게 당부했다. 백근탁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 Naver D.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2022년 2월달 식재용 탱자묘 1년생 사전분양계약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상품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랑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아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